



이긴자 일대기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5화>

모진 연단의 목적은 사망 권세와 싸워 이기는 데 있어

1절: 다섯째 천사와 일곱째 천사

- 1) 동정녀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
- 2) 죽음의 문제
- 3) 불의 성신으로 변화된 심령과 육신
- 4) 희생적인 삶을 일관하는 일곱째 천사
- 5) 신미생의 목숨을 빼앗는 6.25전쟁

5) 신미생의 목숨을 빼앗는 6.25전쟁

‘나’ 라는 주체의식이 곧 마귀인데, 이 마귀는 사람 마음의 주인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심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양심은 선한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은 선한 영입니다. 선한 영은 선한 신입니다. 선한 신은 하나님의 신입니다. 그런데 사람 속에 양심이 되는 하나님의 신이 ‘나’ 라는 주체의식이라는 마귀 영육에 갇혀 있습니다. 이 마귀 육에 갇힌 하나님의 신이 마귀 육을 파하고 마음의 주인 자리를 되찾게 되면, 마귀 영과 하나님의 영의 병존체였던 사람은 마귀 영이 제거되고 순수한 하나님의 영만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순수한 하나님의 영만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마음(양심)이 마귀 마음(육심)을 이겨야 합니다. 이렇게 마귀 마음을 이기는 자가 나와야, 비로소 죽음이 존재하는 마귀 세상이 없어지고 영생하는 지상천국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대장마귀는 이러한 이기는 자의 출현을 막아야 되는 절체절명의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혹시 예정된 이기는 자가 아닐까?’ 하고 대장마귀는 어느 정도 낱새를 맡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곱째 천사의 외할아버지가, “우리 희성(熙星)이가 장차 큰일을 할 꼴상을 지녔어. 손에는 임금 王(왕)자의 손금이 있고, 가슴에는 북두칠성에 해당하는 점이 있으니 큰 인물이 될 것이 틀림없어.”하고 외손자인 일곱째 천사에게 자주 들려주는 것을, 대장마귀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대장마귀는 처음엔 일곱째 천사에 대해서 예의주시하였지만, 그 일곱째 천사의 처지가 너무나 가난한 집안에서 먹여 양식이 없어 죽으로 때우며 가만두어도 영양실조로 곧 죽을 아리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대장마귀는 만약의 경우까지 고려하고 예닐곱의 일곱째 천사가 잠들었을 때 가위눌림을 행하여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여러 번의 가위눌림을 당하고도 일곱째 천사는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거의 인사불성이 되어 오랫동안 깨어나지 못하자, 성미가 급한 대장마귀는 죽은 줄로 착각하고 일곱째 천사 곁을 떠나 또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천사를 숨겨서 키우시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천사에 대한 마귀의 경계심을 흐트리기 위해

일곱째 천사보다 열 살 내지 스물 살 연상의 사람들 중에 독실한 신앙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대장마귀는 하나님의 기만작전에 말려들어 은혜를 입은 독실한 신앙인들에게 시선을 집중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일곱째 천사에 대해서는 감시를 풀고 까마득하게 잊고 말았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독실한 신앙인들은 병자들에게 안찰로 치유의 기적을 행하며 교계를 떠들썩하게 하였습니다. 그 중에 몇몇은 신자를 많이 확보하여 교주행세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흥강사로 나선 은혜자의 대부분이 3년을 못 넘기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대장마귀의 음란무기에 모두 당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 중에 오직 다섯째 천사 박태선 영모님만 마귀의 음란한 유혹을 뿌리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되돌아가서 일곱째 천사 조희성님이 하나님의 기만작전에 의해 대장마귀의 감시망을 벗어나던 시점이 곧 초등학생 때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곱째 천사를 숨겨서 키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숨겨서 키운다는 것은 마귀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키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천사를 오로지 희생으로 팔팔 봉쳐진 심령상태로 이끌었고 또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동반하는 일에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완수해내는 무한한 인내력의 소유자로 이끌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그 어느 누구도 모르는 가운데 일곱째 천사의 고향 김포 감정리(坎井里)에 있는 우물을 생명수로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는 하나님께서 축복한 생명수를 마시고 자랄 수 있었습니다.

구도 모르는 가운데 일곱째 천사의 고향 김포 감정리(坎井里)에 있는 우물을 생명수로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는 하나님께서 축복한 생명수를 마시고 자랄 수 있었습니다.

사선을 넘나드는 고통의 연단을 받아야 했던 신미생의 젊은이들

무서운 연단과정이 거듭되는 일곱째 천사에게 다시 마귀의 시선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천사와 동시대에 태어난 신미생(1931년생) 동갑내기들도 함께 들러리로 극한의 고통을 감내해내야 하는 연단의 대상자에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선을 넘나드는 고통의 연단을 이기지 못하고 신미생의 젊은이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진 비바람에도 꺾이지 아니하고 꽃망울을 터뜨린 자들도 있었으니, 20세기 말에 이르러 정계나 종교계 그리고 그밖에 영역에서 신미생 출신들이 주름을 잡고 주도하는 신미생 시대가 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미생 출신들이 받는 모진 연단의 목적은 사망 권세와 싸워 이기는 데 있었습니다. 이들이 연단을 받을수록 몸에서 후광이 점차적으로 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장마귀는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들 각자의 고유한 오라 빛을 발하고 있지만, 대장마귀의 눈에는 사람들 중에 특히 신미생 출신들의 몸에서 나오는 오라

가 더 선명하고 더 강렬하게 보였습니다. 신미생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 각처의 국가 중에 특히 한국에서 더 강한 빛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을 대장마귀가 감지한 것입니다.

대장마귀 입장에서 볼 때 큰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 몸에서 나오는 빛이 점점 밝아진다는 것은, 그 발광체의 주인공이 자신속의 ‘나(我)’라는 주체의식이라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사망의 무기로 지배해오던 이 마귀세상이 끝나게 된다는 징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장마귀는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경우도 더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진 비바람에도 꺾이지 아니하고 꽃망울을 터뜨린 자들도 있었으니, 20세기 말에 이르러 정계나 종교계 그리고 그밖에 영역에서 신미생 출신들이 주름을 잡고 주도하는 신미생 시대가 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미생 출신들이 받는 모진 연단의 목적은 사망 권세와 싸워 이기는 데 있었습니다. 이들이 연단을 받을수록 몸에서 후광이 점차적으로 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장마귀는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들 각자의 고유한 오라 빛을 발하고 있지만, 대장마귀의 눈에는 사람들 중에 특히 신미생 출신들의 몸에서 나오는 오라



6.25 낙동강 방어선 전투

이에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계락을 아시고, 전쟁의 치열한 공방전이 남쪽에서 진행되면 일곱째 천사를 짓가락으로 집어 북쪽에다가 갖다놓고 또 북쪽에서 전쟁이 진행되면 그 일곱째 천사를 남쪽에다가 갖다놓음으로써 그 생명을 보호하였습니다.*

박한수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축 37회 승리절



무궁화관현악단 김성우 지휘자



이영자 총재가 승리절 경축 화환을 받고 있다



김정용 총재는 토크쇼처럼 사회를 진행하였다



부드러움과 강함의 조화를 보여준 무궁화합창단의 공연



무궁화관현악단의 피날레 공연으로 경축행사의 대미를 장식하였다



대주제단 라준경 총재의 테마가 있는 노래



'승리의 깃발' 퍼포먼스를 단결된 모습으로 하고 있는 부산제단



'이기고 이기셨도다' 공연 중 춤 사위가 멋졌다



'이기고 이기셨도다' 진해제단의 연극과 춤은 이날 행사의 압권이었다